<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조선 후기 시가에서는 경험과 외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일동장유가』는 사행을 다녀온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하며 그에 대한 정서를 솔직하게 드러냈다. 『화암구곡』은 포착된 자연의 양상에 따라 강호에서의 자족감,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 생활 공간인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 데 따른 회포,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로 구성한 개성적 공간에서의 긍지를 드러냈다.

① (가)는 배가 ‘나뭇잎’처럼 파도에 휩쓸리고 하늘에 올랐다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하여 대풍을 겪은 체험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는군.

② (나)는 화암의 풍경이라 인정할 만한 것이 ‘너뿐’이라고 하여 자신이 기른 화훼로 조성한 공간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는군.

③ (가)는 ‘육선’에 탄 사신단이 만물이 격동할 만한 ‘군악’을 들으며 떠나는 데 주목해 경험에 대한 관심을, (나)는 꼬이고 틀어진 모양으로 가꾼 식물에 주목해 외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군.

④ (가)는 배에서 ‘신세’를 생각하는 모습으로 사행길의 복잡한 심사를, (나)는 ‘청산’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을 ‘야인 생애’로 표현하여 겸양의 태도를 드러내는군.

⑤ (가)는 집으로 돌아와 한가하게 지내며 ‘성대’를 누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나)는 양류풍에 감응하며 ‘뜻대로 소일’하는 강호의 삶에 대한 자족감을 드러내는군.